예술쟁이 데비 한, 다문화 리믹스 시대에 정체성을 질문하다

김영옥, 이미지 비평

'너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데비 한의 새 작업들은 리믹스(Re-mix)의 시대정신속에서 정체성의 물음을 새롭게 빚어낸다. 이번 사진 작업은 이전의 작업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동시에 새로운 시각적 실험에 몰두한다. 공간은 새로워졌고, 언어는 또 천천히 더듬거리면서새로운 직물을 짜기 시작한다. 데비 한의 작품세계를 일관되게 관통하는 몇몇 특징들은 이번작업에서도 예외 없이 관람객을 사로잡는다. 미 작업의 현재적 · 궁극적 의미를 향한 질문의자세,장인의 진정성과 완결성, 그리고 아름다움과 심미적 쾌락의 복원을 향한 열정. 그녀의작업들이 담고 있는 고되고 엄격한 장인적 노동의 흔적은 '모든 견고한 것이 녹아버리는' 시대에,그리고 무엇이든 돈으로 환산되거나 치환되는 상품물신자본의 시대에 '예술'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주장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요하게 환기시킨다. 이제까지 그녀는 상품과문화의 구별이 불가능해진 시대적 상황을 거스르며 장인의 정신으로 문화의 가치를 질문하고장인의 고집으로 문화를 생산해 왔다.

이번 전시 <The eye of perception>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데비 한의 다중적 작업과정을 한 장면에 겹쳐놓은 사진들로 보여준다. 그녀는 서구의 미 개념을 상징하는 그리스 비너스의 두상이 한국이라는 지역에서 누려온 미학적 위상을 사회문화적으로 질문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해 왔다. 미 산업과 스포츠 산업 전체를 관통하는 외모 추구 혹은 광기서린 열망의 허구성에 직면한 그녀는 일상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정체성의 속살을 보여줌으로써(Grace 시리즈) 진정한 미의 감각을 환기시켜왔다. 그리스 조각품들의 머리와 한국의 일상적 현실을 살고 있는 여성의 질료적·생활세계적 몸으로 이루어진 '미의 여신들' 이미지는 고대 그리스 미학의 정수라고 일컬어지는 '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함 edle Einfalt und stille Größe'을 유머러스하게 변형시킴으로써 특유의 미적 쾌감을 선사하는 한편, 아름다움을 몸으로 느낀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이 이야기를 들러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각자가 나름의 방식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심미적 성찰성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The Eye of Perception 에서의 얼굴'들'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지각의 차원과 연결시키고 있다. 고전적 미의 정전으로 되어있는 그리스 조각 얼굴형에 전형적으로 종족성과 연관된 특정 얼굴 부위들 - 유대인의 코, 아프리카인의 입술, 동양인의 광대뼈 등 - 을 실험적으로 대입시켜 흙으로 빚은 후 불에 굽기 전에 사진으로 찍는다. 그 사진들을 다시 서너 장씩 겹쳐 인화 한다 - 우리 눈앞의 저 '얼굴'은 그 모든 작업과정과, 여러 전형적인 얼굴'들'을 동시에 담고 있다. 관람객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지각하고 있는 것일까. 흙으로 빚은 이마나 코에 남아 있는 붓질의 흔적에서부터 조금씩 다른 선으로 겹쳐있는 얼굴의 윤곽들까지 '단 하나'의 (기계적) 이미지로 환원할 수 없는 다중적 이미지들을 지각하면서 관람객은 그 이미지들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구성해온 역사와 함께 그

모든 이미지들을 관통하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이미지들이 서로 조응하면서 '대리보충적'으로 만들어내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어떤 본질을 향해 더듬이를 움직이게 된다. 촉각적이면서 시각적인 이 사진들,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느끼게 해 주는 이 사진들은 다양한 종족과 인종의 얼굴들을 겹쳐 보여줌으로써, 타자들과의 겹침 속에서만 즉 '리믹스' 속에서만 역설적으로 가능한 개인의 유일무이한 존재성을 암시한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의 '본질'을 질문하는 한 예술가의 놀라운 장인적 추구가 도달한 심미적・철학적 성취 앞에서 결코 일회적 소유욕망의 대상으로 축소될 수 없는 예술표현의 미래를 본다.

일체의 경험이나 관계성, 역사성을 빼앗긴 채 욕망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물신으로서의 상품과 달리 데비 한의 손을 거쳐 우리 앞에 놓은 작품들은 우리에게 '표류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닻'의 역할을 제안하는 것 같다. 거래가 관계를 대신하는 시대에 그녀의 작업들은 경험의 축적이 보람 있는 일이며 시간 속에서 무르익은 관계가 삶의 의미라고 말한다.